

연중 제21주일

기도서 420면 (B해)

제1독서: 여호 24, 1-2a
15-17, 18b

제2독서: 에페 5, 21-32
복 음: 요한 6, 60-69

숲 정 이

“주님,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을 가지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두고 누구를 찾아 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하느님이 보내신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압니다”
(요한 6, 68-69)

강론

너희도 떠나 가겠느냐

박 기준 신부 / 순창주임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어떤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서 향구한 신뢰를 갖지 못하고 계산적이고 이해타산적인 착상에서 자기에게 불리하다 싶으면 즉시 신뢰를 저버리고 뒤돌아서 버리는 삶의 자세를 지적하는 말이다.

사실 하느님의 구원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예수님을 따라 다니며 여러 가지 기적을 본 사람들 모두가 다 하느님께 향구한 신뢰와 충성을 갖지는 못했다. 예수님을 따라 다니던 많은 사람들중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들의 기대(물질욕, 권세욕, 명예욕)에 어긋나자 그분을 버리고 떠나 버림으로써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제1독서와 복음에서 예언자 여호수아와 예수님이 각각 그들의 결단을 묻는다.

여호수아의 질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야훼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다니 될 법이나 한 말입니까? …… 우리도 야훼를 섬기겠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느님 이십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예수님의 질문에 시몬 베드로가 나서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두고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하고 대답했다.

이 질문은 바로 오늘 우리 각자에게 던져진 질문이요, 신앙의 결단을 요청하고 있다. 우리 각자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자,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도 떠나 가겠느냐?” 이 질문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다. 우리는 삶의 매 순간 순간에 신앙의 결단을 내려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때로는 모든 것에서 떠나 버리고 배신하고픈 충동을 느끼게 될 것이며, 신앙을 단순히 자기 안일의 도구나 피난처로만 생각할 때도 있을 것이다. 물질만능주의적 사회풍조에 현혹되어 하느님을 믿는 것이 오히려 짐스럽게 느껴지고 오히려 신앙이 나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모는 것을 다 가져다 줄 수는 없다. 물질만능주의적 배금사상은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며 신께 대한 신앙을 유폐하고 있다. 우리가 오직 그분께 무엇을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얻기 위해서만 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이기적인 신앙으로는 예수님의 본모습을 볼 수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이다.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이들은 이기적 신앙의 소유자들이다. 참 믿음은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이해 타산에서 나오지 않는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허락한 사람이 아니면 내게 올 수 없다”고 했다.

참 신앙은 신의 선물이며 은총이다.

소리

이산가족의 아픔

대한적십자사는 남북적십자회담체의 17주년을 맞아 중단된 적십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북한측에 촉구하는 특별담화를 내는 한편 이산가족 명부작성을 위한 가족찾기 신청접수를 지난 12일부터 일제히 시작했다.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세계인들은 각종 분야의 축제를 서울에서 벌이고 있는데 같은 핏줄인 남과 북은 아직도 참다운 대화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통칭 1천만이라는 이산가족의 안타까움이야 오죽하겠는가? 북의 폐쇄사회의 벽이 아무리 두텁다 해도 지적인 서울에서 세계인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음을 모를리가 없을 것이다. 이번 올림픽을 북한이 아무리 부정하고 거부하려고 해도 공산권 국가가 대거 참가하고 있는 사실 조차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치적인 이유로 올림픽 참가를 앓았다면 인간본연의 윤리적 인권적 측면에서 40년간 떨어져 살아온 부모형제의 생사확인하고 서신교환과 상봉을 무슨 이유로 막고 있는가? 세계의 낯선 얼굴들도 서울에서 한마당 축제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터에 이제는 이산가족의 상당수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돼 마지막 소원이 된 핏줄상봉과 고향찾기를 어찌 외면할 수 있단 말인가?

민족의 양심과 민족의 자존심이 조금이라도 살아있다면 이산가족을 이어주는 일에 더 이상 조건을 달아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 서울올림픽이야말로 이산가족에게 환희를 가져다 줄 수 있도록 대한적십자사의 제의에 북측이 민족의 양심으로 돌아와 성의있게 나와야 할 것이다.

숲정이 산책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SLOOC에 보낸 메시지 ■

“
서울
올림픽 통해
인류는
증오심 버리자.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지난 10일 제24회 서울 올림픽을 맞이하는 교황메시지를 발표, 서울 올림픽대회를 축하하고 성공적 개최를 기원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서울 올림픽 축하메시지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제 24회 올림픽 대회를 맞이하여 세계인의 우정과 친선의 축전을 준비하시는 국제올림픽위원회 및 한국의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충심으로부터의 인사와 축하를 보냅니다. 이 대회를 통하여 인간의 존엄성이 수호되고 존중되며, 개인과 국가가 진정한 공동체의식 및 평화의지를 가지고 우리 시대의 과제에 대응하는 차별과 미움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의 증좌로서 참다운 화합과 형제애의 정신으로 선수들과 관중들이 성숙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참가자들에게 전능하신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서와 함께

16. 이스라엘의 사회구조(B) : 씨족

두번째 사회구조인 씨족은 친·인척의 여러 가족들이 모여 이룬다. 씨족은 유목생활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최소를 필요한 단위였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 이 씨족단위는 마을로 대치된다.

씨족은 원로라고 불리우는 각 가정의 가장들이 연합지도체를 이루어 통치하였다. 신명기법전에 보면 원로들은 생명과 죽음의 권한을 갖고 있었다(신명 21, 18-21). 그러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원로들에 의한 통치만으로 외적을 격퇴시킬 수 없었다. 그래서 채택된 것이 판관제도였다. 판관은 원로들 중 하나로서 영도력을 발휘하여 정의를 세우고 전쟁에서 씨족 전체를 단결시켜 외침에 대처했던 카리스마적인 지도자였다.

씨족제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특성은 철저한 연대책임의식이었다. 이 제도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구속자' 또는 '속량자'의 개념을 만나게 된다. 히브리말로 '고엘'이라고 부르는 구속자의 역할은 무엇보다 씨족내의 결속을 다짐하기 위해 연대책임을 수행하는 것이다. 강한 연대성 때문에 씨족 중 한 사람에게 입힌 상처는 씨족 전체에게 입힌 상처로 간주된다. 상처받은 개인들은 보통 복수할 능력이 없는 약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씨족 내 가까운 친척들 가운데 고엘이 나타나 피해자들을 대신해서 복수할 책임을 떠맡는다(신명 19, 6; 여호 20장).

연대책임은 피의 복수뿐 아니라 빛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로 적용된다. 빛에 물려 어떤 개인이 스스로를 노예로 팔아 넘겼을 때, 고엘은 그를 다시 사기 위해 몸값을 지불해야 한다(레위 25, 47-49). 또 어떤 사람이 유산으로 받은 땅을 부득이 팔 경우가 생겼을 때 고엘이 그 땅을 사두었다가, 땅을 판 사람의 형편이 풀리게 되면 다시 되팔거나 영 형편이 풀리지 않게 되더라도 회년(곧 안식년을 일곱번 지낸 후의 50년째)이 오면 계약을 해제시키고 땅을 임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이런 희망 때문에 고엘에게 땅을 팔았던 사람들이 씨족을 떠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레위 25, 24-28). 예레미야가 아나돗에 있는 사촌의 밭을 산 것도 바로 고엘로서의 의무를 실행하기 위한 것이었다(예레 32, 6-15).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에 나오는 저 유명한 아리아, “나는 내 속량자가 살아가시다는 사실을 안다”(욥기 19, 25)의 성서적 배경도 바로 이 고엘의 개념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하느님이 고엘이라는 사상은 구약성서 중 특히 시편과 제2이사야서(40-55장)에 잘 나타나 있다. 시편에서 하느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억압과 괴질과 죽음에서 보호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시고 억울한 사람들의 송사를 들어주신다. 제2이사야서에서는 하느님이 바빌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량하시는 고엘로써 소개되고 있다. 마침내 신약성서 저자들은 예수의 죽음에서 고엘의 책임완수를 보았다(루가 24, 21; 로마 3, 24; 에페 1, 7).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살아있는 물은 없는가?

헤미리정수기

가족 모두의 건강을 위하여 헤미리 정수기가 공해 산업에 동참하였습니다.

한국정수산업(주) 전북지사 ☎ 86-4442

이리대리점 3-9700 · 군산대리점 2-5235

남원대리점 2-5105 · 정주대리점 2-8567

헤미리와 동참하실 영업사원 및 대리점들 모집합니다.

희 소 식

독사뱀몰린 사람 전문치료
단 1~2회 족석에서 효과 완치

송 준의(발리바)

전주시 전마동 1가 전당리 시내버스종점
시내버스안배: 9번, 31-1, 31-2, 31, 49번

☎ (야)5-3544, (주)3-9441

현대미용학원

김 금순(테레사)

학생 수시모집

피부관리사 양성

전주중앙성당 건너편 버스정류장

☎ 86-2211

교 구 소 식

1. 사제 연수회 : 23일(화) 오전10시30분 장소-가톨릭센터
 2. 혼인법원 : 23일(화) 오후2시 장소-교구청
 3. 대학생을 위한 피정 : 일시-9월17일~18일 대상-모든 신자 대학생 회비-1,000원 접수-교육국 후원-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4. 성소자 모임 '부제님과 함께' : 일시-21일(일) 오후2시 장소-가톨릭 센터 대상-중·고·대·일반 성소자
 5. 행복한 가정 운동 본당 지도자 모임 : 일시-8월23일 오전10시 장소-가톨릭 센터내 행복한 가정운동 상담실 (지도자 교육 받으신 분,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요망)
 6. 거룩한 말씀의 회 성소모임 : 때-매일 첫째 주일 오후2시 곳-대전시 중구 목동 96-2 연락처 (042)256-5637 문의처-군산 오룡동 천주교회내 수녀원(0654) 63-2002
 7. 강연회 '전자문화 안에서의 인간과 교회' : 일시-9월5일(월)-7일(수) 장소-서울 명동 가톨릭 회관 7층강당 주세-1)전자문화의 특징과 인간변화 2)전자문화 안에서의 교회변화 3)전자문화 안에서의 복음화 강사-빠에르 바맹 신부 회비12,000원(점심 각자지참) 접수처-서울 중구 정동17 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02)757-8941 주세-가톨릭 매스컴위원회, 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 ※ 축! 영명 성 비오(21일) : 문선구신부님
 성 바르톨로메오(24일) : 문정현신부님 축하합니다.

잠 간!

"38년 사제의 삶이 남긴 것"

지난 16일 11시, 38년간의 긴 사목 생활을 공적으로 마무리 짓는 권 영균(안토니오) 신부님의 은퇴 미사가 있었다. 38년의 사제 생활! 그러나 이제 그분께 남은 것은 무엇인가? 사제가 독신으로 산다 함은 단지 아내 없이 산다는 것, 그 이상의 것이다. 이제 그에게는, 인간적인 모든 것으로 부터 제외된다. 가정은 물론 재산, 명예, 권력, 종족 보존의 본능, 사랑하고 사랑 받고 싶은 본능에서 까지도 제외된다. 이제 그에게는 하느님만이 전부다 되어야 한다. 오로지 하느님 때문에 일하고 하느님 때문에 즐거워하며 하느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것만이 그의 삶의 목적이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세상은 이를 거부한다. 세상은 사제들로 하여금 세상으로부터 축성(聖別)된 자(者)로서 남아, 존재 함을 허락치 아니한다. 그리하여 사제 역시 여느 사람들처럼, 많이 소유하고 높아 올라가며, 남들로부터의 칭찬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것들을 얻는 낙으로 살아 가도록 끊임없이 유혹한다. 하느님이 아닌 세상 것들로도 얼마든지 재미있게 살 수 있다고 집요하게 속삭인다. 세상 것들... 세상이 얼마나 좋으냐고 끈질기게 추파를 던진다. 기왕 사제이기에 사제로서 살아가되 세상을 떠나서 살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끊임없이 타협의 손을 내민다. 이런 세상에 귀를 막고 눈을 돌리고 손을 뿌리치기가 얼마나 험하고 고통스러운지 권 신부님은 체험으로 알으시리라. 그러나 이는 사제가 깊어져야 할 심자가! 끝까지 참고 견디면 구원이요, 포기하면 파멸이기에 38년을 견디어 오셨다. 재산을 소유하지 않으시고 명예를 탐하지 않으셨으며, 제단과 함께 사신 그의 삶이기에, 이제 은퇴 사제라는 새 이름을 얻으셨다. 하지만 사제에게 은퇴란 가당치도 않는 말이다. 사제란 '멜키세덱의 품위를 이은 영원한 사제' 이기 때문이다. 권 신부님! 참으로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제로서의 성공을 축하드립니다. 신부님! 38년의 힘든 삶! 남은 것이라고는 늙으신 육체 뿐입니다. 하오나, 거룩한 사제라는 품위만은 남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요십이 (785) 김병오



□ 1분 명상

모든 사람은 다 잘못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의 허물을 끝내 고집하는 자아말로 잘못하는 자이다.

— 치체로 —
명동피부과의원

성전신축기금

각종 것갈류를 좋은 품질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천주교 서신동교회 부회
 ☎ 4-2214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드레스마춤·대어

최윤경 (유리안나)

미용실·미용학원

학생 수시 모집
 해외 연수생 모집
 이리시 중앙동 3가 7-1
 ☎ 3-2496·2-8653

☎ 내과 전문의

위상양내과의원

위상양 (프린치스코) · 김병희 (클리라)

☎ 병원 4-1225, 자택 75-0034

전주시 고사동 2가 1-13 원주농협·우신호텔 앞

황수경산부인과

여의사 산부인과 전문의 황수경 (크리스티나)

이승렬 (엘리야)

관동로 서울신탁은행 건너편골목

☎ 84-7272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이재후
사무실 82-9661 사목회장 노인석
수녀원 82-9662

1. 교구사제 연수회: 23일 10:30분 어머니미사는 오전9시에하고 L.M에 포함함
 2. 중·고 지도자와 교리교사 단합대회: 교리교사 20일~21일 장수탁산 중·고지도자 27일~28일 덕유산
 3. 동신자의 모후 브레시디움 분리: 단장 이양구 부단장 공효숙 시기 박민중 회계 이정희, 신브레시디움 착한이들의 모후 단장 이수원 부단장 장급순 시기 박용문 회계 김은영 축하합니다.
 4. 제대회 월례회: 26일 10시30분
 5. 부재님 실습수녀님 학사님께 감사: 신학교 개학22일, 실습완료 26일
 6. 민발렌티나 수녀님 피정: 16일~25일
 7. 프란치스코의 집 수리완료: 그동안 수고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실내화를 이용하여 깨끗하게 사용합시다.
- 지난주봉헌금: 614,185원 교무금: 531,000원
 성모승천 축일금: 564,770원

* 복자

사제관 86-3453 주임신부 김기수
사무실 86-3455 사목회장 신일균
수녀원 86-3454

1. 설우회: 오늘공식미사후 2. 요셉회: 오늘공식미사후
 3. 반회장회: 25일 오전10시 4. 여성분과위원회: 27일 오전10시
 5. 유아세례: 27일 저녁7:30 6. 주일학교개학: 27일 오후3시
 7. 심회: 28일 오후2시 8. 회장단회: 28일 저녁미사후
 9. 영세 대상자 집중교리: 29일부터 오후8시
 10. 분당 전신자 성지순례: 9월11일 장소-해미성지 참가비5,000원
- 금주성당침소: 월-결혼의 모후Pr 토-구세주의 모후Pr
· 금주전례: 해설-황만급 독서①조성호 ②신형순
 봉헌-조성호씨부부
· 차주전례: 해설-서미옥 독서①양규철 ②허순덕
 봉헌-양규철씨부부
- 지난주봉헌금: 472,060원 교무금: 487,820원
 성모승천축일현금: 377,690원 교무금: 291,600원

*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이상섭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유순천

- ※ 성지순례: 제천 배론 24일 오전6:30분 출발
관광버스 의암, 용암 출발 시간에 늦지 마세요.
1. 감사: 사제관 낙성식 및 본당의 날 행사에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2. 구역미사: 25일 위어두
 3. 청년회: 공식미사후
 4. 제대회: 다음주 공식미사후
 5. 울뜨레아: 31일 저녁미사후
 6. 사제관 신축현금: 총액17,593,000 한동수, 조정만 각5만원 익명-10만원
- 지난주봉헌금: 172,530원 교무금: 51,500원
 성모승천 대축일현금: 204,17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주임신부 이순성
사무실 84-2276 사목회장 김환용
수녀원

- ※ 금주강론: 육의죽육과 형의생명
1. 회의: 성모회-오늘 공식미사후
 2. 행사: ①성체강복및 조배-25일 오후7시30분 ②산행미사-26일 오후3시 치명자산
 3. 알림: ①토요일특별미사(20일)-주교님 집전 ②본당신부님 휴가-22일~24일 저녁미사없음 ③다음주는 교무금 봉헌일입니다.
- 지난주봉헌금: 384,160원 교무금: 140,000원

* 전통

사무실 84-3222 주임신부 이수현
수녀원 84-8347 보좌신부 김진화
레지아사무실 83-5085 사목회장 안득수

1. 사목회: 오늘저녁미사후 2. 레지아: 오늘오후2시
 3. 성화회: 오늘공식미사후 4. 울뜨레아: 22일(월) 저녁미사후
 5. 성경읽고쓰기: 27일(토)까지 제출바람
 6. 본당성소자 모임: 27일(토) 저녁미사후
 7. 구역장·빈집모임: 29일(월) 오전11시
 8. 철야기도: 26일(금) 저녁11시
 9. 타지역 교적 해당본당으로 진출완료: 8월31일까지
 10. 청년연합회 회장단 및 원인이 구성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수고 하시겠습니다.
- 회상-김평신 부회장-김중아·방용경 고문-최종만·황선종
총무-조순용 기획-황명하 홍보-주정숙
- 지난주봉헌금: 1,007,470원 교무금: 870,000원
 성모승천축일현금: 814,000원 나눔의 헌금: 58,450원

* 중화산동

사제관 86-3712 주임신부 박창신
사무실 86-3711 사목회장 김용무

1. 청년회 모임: 오늘 공식미사후에 있음
 2. 반회장 모임: 금요일 어머니 미사후에 있음
 3. 새끼리 공소미사: 금요일 오후8:30
 4. 첫영성체 교리: 8월30일 오후5시부터 있음
 5. 순교자 성혈을 위해 우리나라 천주교회 책 판매합니다.
 6. 영세자 사진 찾아 가십시오
 7. 다음주일 모임: 금요일 어머니 미사후 성모회
- 금주전례: 해설-노옥자 독서1 김종오 ②이보순
차주전례: 해설-김옥희 독서1 권영창 ②한규재
- 지난주봉헌금: 302,460원 교무금: 374,000원
 승천대축일현금: 239,150원
 신축현금: 서계남100,000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주임신부 박병준
사무실 83-8245 사목회장 김광환

1. 신축현금 신입자: 고관좌3만원 유혜란10만원
 2. 성모회: 오늘 공식미사후
 3. 꾸리아 월례회: 다음주일 오후3시
 4. 사무장 휴가: 23일(화)부터 26일(금)까지
 5. 성령세미나: 9월6일부터 9일까지(저녁미사후) 사무실에 많은 신청바랍니다.
 6. 금주전례: 해설-박종구 독서①최 춘 ②박혜정
 봉헌-강세형 부부
차주전례: 해설-문치구 독서①김나섭 ②윤안나
 봉헌-고광필 부부
- 자선헌금: 26,550원
 신축현금 십일총액: 119,450,726원
 지난주봉헌금: 288,280원 교무금: 171,000원

* 효자동

사제관 83-3841 주임신부 유종환
사무실 84-0915 사목회장 문대현
수녀원 84-4804

1. 24시간 성체조배: 목10~금10시
 2. 성체강복: ①목요일10시 ②금: 45
 3. 본당 전례에 수고해주시는 김영일 신부님과 배영근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4. 본당신부님 연수회(16~25)중에 기도해주시는 교우분께 감사
 5. 성모승천 대축일 성가에 수고해주신 어머니 성가대 청년성가대에 감사드립니다.
 6. 모임안내: ①로사리오 모후 꼬미씨움-금주 토요일 오후2:30분
 7. 청소담당: 금주-광진APT 차주-서부거성APT
- 지난주봉헌금: 784,610원(984명) 교무금: 542,000원 주일 학교봉헌금: 12,500원(164명) 중고생: 44,150원(147명) 금요일나눔의 헌금: 83,740원